

## Peace be with you!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과 충돌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화려한 첨단 무기들이 뿜어내는 불꽃 이면에는 막대한 파괴의 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도와 추정에 따르면, 전쟁 초기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십 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만 해도 캄보디아의 한 달 치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연간 약 40조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자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총비용은 수조 달러에(4~8조 달러)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이 농업과 물, 교육과 생태 회복에 사용되었다면, 전 세계의 기아와 빈곤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에게는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사람의 선택과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위에 평화와 생태 감수성을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며 협력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빈부와 인종, 민족과 종교의 분열을 넘어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로서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섬기는 청

**지기적 사명을 가르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로서 기도합니다. 중동의 긴장이 속히 완화되고 전쟁이 멈추도록,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도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캄보디아와 이삭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며

**2026년 3월 20일**

**이삭 공동체에서**

**김기대 · 류소현 선교사 드립니다.**